

## 황금연휴 코로나19 방역대응 허점 우려 이틀만에 8만명 돌파... 관광회의 자료 그대로 활용 '빈틈'

남은 기간 촘촘한 대응 필요

황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경 수준'의 방역대응에 변수가 생겼다.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제주를 찾으며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한달 전, 제주공항에서의 첫 해외 입도객 관리에서도 우왕좌왕했던 터라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남은 연휴기간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도는 이번 황금연휴(4.29~5.5) 일주일간 제주방문 예상 관광객을 17만906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3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연휴 첫 날인 29일에만 3만6587명(잠정치)이 제주를 찾았고 석가탄신일 당일에도 잠정 4만명이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1일 입도 관광객 최대치다.

여기에 1일 근로자의 날과 주말 및 휴일, 그리고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방문객은 제주도의 전망치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30일부터 황금연휴가 끝나는 시점인 내달 6일



정검다리 황금연휴 첫날인 30일 제주관문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는 많은 입도관광객으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까지 예정된 김포~제주 노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모두 1670대로 하루 평균 238.6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5월초 연휴(5.3~6)의 일평균 252.5대보다는 다소 적지만 94.5%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양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항공사들도 항공기 투입을 점차 늘리고 있다. 제주를 잇는 군산, 포항 등도 이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운

항 중이다. 제주행 탑승률도 60~70%대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방역 수용력이 한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창 항공편 예약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제주 입도 관광객 수를 잡았기 때문에 1대1 검사 등 현장 적용과는 차이가 크다. 29일 당일만 보더라도 입도객 2만5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로는 1만2000명이 더 많았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도 제주공항에서의 해외에서 거주하다 첫 입도한 승객에 대한 방역관리에서도 국제선 항공기 '첫다운(일시중단)' 상태에서 중국발 춘추항공을 타고 50여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제주도는 사전 운항 재개조차도 몰라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향후 10년 환경·도민 삶의 질 비전 제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본격

12억 투입 내년 5월 완료... 새로운 모델 정립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 환경과 의 조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새로운 모델 정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은 이날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토연구원 이 5월초 착수해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 및 2개 업체 컨소시엄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진행되며 약 12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기존 1·2차 계획에 제안됐거나 추진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한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기후 변화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전 등 대내·외적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목표다.

2002년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비전으로 자리매김하며 인구와 관광객, 경제규모 등에서 성장을 이뤘으나 이로 인한 일부 환경훼손 등 부작용 문제와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3차 종합계획 수립시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도민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평가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수시 학생부·정시 수능’ 기조 그대로 유지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

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전체 모집 인원 감소·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한 반면 정시모집은 2021학년도 8만73명에서 8만4175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정시모집은 수능위주'의 선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모

집인원 34만6553명 가운데 22만8557명(66%)이 학생부 위주로 선발되고, 정시 모집인원 8만4175명 중 7만978명(90.3%)이 수능을 위주로 선발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인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늘렸다. 이에 2021학년도 4만7606명에 불과했던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올해에는 5만35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송은범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이달부터 한라산 입·하산 시간 조정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된 입산 시간을 보면 ▷어리목·영실코스(탐방로 입구)는 오후 2시→3시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1시30분→2시 ▷성판악 코스(진달래밭 대피소) 낮 12시 30분→오후 1시 ▷관음사 코스(삼각봉 대피소) 낮 12시 30분→오후 1시 ▷돈내코 코스(탐방안

내소) 오전 10시30분→11시 ▷어승생악 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5시→6시로, 코스별 탐방 시간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에는 기온차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탐방객의 안전산행을 위해 여벌옷, 장갑, 모자 등 그 외 충분한 식수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 **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